

피델 카스트로 없는 ‘조용한’ 아바나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그 자리에 있던 것이 없으면 어색하기 마련이다. 지난해 11월 25일 사망한 피델 카스트로 전(前)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장례 기간 술과 음악이 없는 쿠바의 거리가 그랬다. 평소 노래 소리로 떠들썩했던 거리는 적막했다. 1959년 혁명 이래 나라의 정체성 그 자체였던 카스트로가 없는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가 봤다.

글·사진 김지현 중남미 순회특파원



- 1 아바나 시민이 카스트로의 사진과 꽃다발을 거리에 내놓고 추모하고 있다.
- 2 혁명광장 혁명탑 앞에 카스트로를 추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 3 카스트로의 얼굴이 그려진 유화를 시민이 응시하고 있다.
- 4 아바나대학 학생들이 추모식에 참석하려고 혁명광장으로 행진하고 있다.



3



2



4



1 AP=연합뉴스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의 사망 이후 국상(國喪) 기간 쿠바는 ‘피델 없는 쿠바’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듯 음악과 술을 금지했다. 정작 쿠바인 자신들은 별로 즐기지 않으면서도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의 음악에 매료돼 쿠바를 찾은 외국인의 주머니를 열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전통 악기들과 함께 불러 짓히는 흘러간 옛 노래들. 50년도 더 된 차에 개조 스피커를 장착해 가장 큰 볼륨으로 세상이 떠나가라 틀어대는 스페인어 힙합. 이 모든 것이 ‘피델 없는 쿠바’엔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았던 국상 기간 쿠바의 모든 것은 아바나 혁명 광장(Plaza de Revolución)에 있었다.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옛 지도자의 마지막 가는 길에 동참했다. 공산주의 국가 쿠바에서 큰 행사가 있으면 으

레 그렇듯 직장, 동네, 학교 등 각종 단위로 모인 시민들은 새벽부터 광장을 가득 채우고 “피델 만세!”를 연호했다. 국영 TV는 광장 실황을 24시간 생중계하며 추모객들을 인터뷰했다. “피델은 내 삶의 등불이었고 나는 그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는 찬양 일색의 추모사를 거침없이 말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아마도 쿠바공산당의 진성 당원들이었으리라. 이 ‘미주 대륙 최후의 공산주의 국가’는 미국과 국교를 재수립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다지만, 또 카리브 해 특유의 열정과 자유로운 분위기가 표면을 덮고 있다고는 하지만, 공중파 방송 인터뷰에서 속내를 털어놓을 만큼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이 잘 드러나는 듯했다.



1

노래로 떠들썩했던 거리, 국상 기간엔 딴 세상

아바나 거리의 풍경은 잘 포장된 TV 속 화면과 또 달랐다. 아바나 구도심 '아바나 비에하'(Habana Vieja)가 그랬다. 쿠바 관광의 중심이자 1950년대를 연상케 하는 테마파크처럼 과거의 모습이 남아 있는 공간이다. '베사메 무초'(Besame Mucho)를 부르며 관광객을 유혹하는 이들로 넘쳐나던 곳이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와 걸음 소리만 들려왔고 전통 악기 연주와 노랫소리는 자취를 감췄다.

여느 때와 달리 '조용한 아바나'는 어쩌면 일생에 단 한 번 겪을 수 있는 독특한 시공간이었을 지도 모른다.

아바나 비에하의 중심인 오비스포 거리의 시작을 알리는 식당 겸 술집 '엘 플로리디타'(El Floridita)도 문을 닫았다. 쿠바를 사랑한 미국의 대문호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한 자리에서 다 이키리 칵테일 13잔을 마신 곳으로 유명한 이곳은 음악 소리와 손님이 끊이지 않는 명소지만 이날은 철제 셔터만이 공허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조약돌과 아스팔트, 타일이 무질서하게 뒤섞여 깔린 길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아바나에서 귓가에 들려오다니. 길 건너편 사람들이 대화하는 목소리가 커다란 음악 소리에 묻히지 않더니.

카스트로 전 의장의 장례 기간이던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4일 사이에 아바나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방문한 이들은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던 아바나의 다른 얼굴을 마주했을 것이며 평생 아바나를 그렇게 기억할 것이다.

술집들이 모두 문을 닫자 오비스포 거리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자석, 엽서, 티셔츠 등 기념품과 간단한 먹거리를 제외하면 카스트로 전 의장의 사망, 추모식과 관련된 소식으로 도배된 신문 정도였다.

관광객들은 신문 판매인에게 속아 현지인들이 사는 가격의 20배가 넘는 돈을 치르고도 역사를 기록한 신문 한 부를 사느라 바빴다. 쿠바엔 외국인용으로 도입돼 지금은 광범위하게 사용

되는 CUC(태환 페소)과 내국인용 CUP(쿠바 페소) 등 두 종류 화폐가 있는데, 신문의 원래 가격은 1CUP임에도 외국인에겐 24배 가치에 달하는 1CUC로 속이는 식이다.

상인 "피델 티셔츠도 팔고 싶어"

쿠바 관광의 중심지에서 일하는 쿠바인들은 하루빨리 장례 기간이 끝나고 아바나 비에하가 예전의 활력을 되찾기를 바랐다.

길거리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던 한 20대 청년은 "일하는 술집이 문을 닫아 놓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느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나라에 더욱 도움 되는

일이라고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얼굴과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때 쿠바인들의 목소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같지 않았다.

오비스포 거리 기념품 가게들이 판매하는 주력 품목은 여전히 카스트로 전 의장과 함께 1959년 쿠바 혁명을 이끌었던 '혁명의 아이콘'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체 게바라의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를 진열한 한 기념품 가게 주인은 카스트로 전 의장과 관련된 기념품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런 물건의 판매는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으면서도 "원하는 사람만 있다면 뭐든 갖다놓고 팔고 싶다. 피델 티셔츠라고 못 팔 이유가 뭐냐"라고 말했다. 쿠바는 그렇게 조금씩 변화가고 있었다. ▼



2



4



5



- 1 카스트로 사망 발표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26일 아바나 거리.
- 2 신문 표지에 카스트로의 사진이 담긴 모습.
- 3 아바나 시내 거리에 쿠바 국기가 조기로 게양됐다.



3

- 4 아바나 구도심 '아바나 비에하'의 거리 모습.
- 5 아바나 시내의 한 상점에 '닫음'(cerrado) 팻말이 걸려 있다.